

# 광주·전남 주식투자자 10명중 7명이 남성 ... 40대 최다

### 지난해 총 23만6000명 ... 1년새 1.4% 증가

###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주식 가장 많이 보유

광주·전남지역에선 누가, 무슨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 광주와 전남 주식 보유자의 경우 성별로는 10명 중 7명이 남성이고,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식 투자자들은 지역 상장기업 중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대우신소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유가증권, 코스닥, 프리보드 시장 중 12월 결산사를 기준으로 주식투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주식투자자(실질주주)는 23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12월 결산 지역발행사 실질주주수 (2천명이상)

순위	회사명	주주수	전국순위	비고
1	금호산업	30,560	87	유가증권시장
2	금호타이어	26,781	106	유가증권시장
3	대우신소재	13,410	221	유가증권시장
4	로케트전기	11,219	272	유가증권시장
5	파루	10,925	286	코스닥시장
6	대우에이텍	10,059	323	유가증권시장
7	비엔비성원	7,407	451	예탁지정
8	셀린	6,821	500	예탁지정
9	KPX화인케미칼	3,225	1059	유가증권시장
10	KPX라이프사이언스	2,629	1235	코스닥시장
11	보해양조	2,536	1254	유가증권시장
12	디에스알제강	2,338	1126	유가증권시장
13	와이엔텍	2,123	1412	코스닥시장
14	우리로광통신	2,119	1422	코스닥시장

지역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보유주식수도 5279주로 1년 새 4.3% 증가했다. 실제투자자 수 중 개인주주가 23만1904명으로 법인인과 외국인을 합한 전체 주주의 99.7%를 차지했고, 소수주식수의 경우 개인주주가 93.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주식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발행사별 실질주주수가 2000명 이상인 회사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대우신소재 등 모두 14개사로 전년보다 1개사 줄었다. 실질주주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광주 북구가 4만명(17.0%)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14.2%), 광산구(11.6%), 여수(9.9%), 순천(8.9%)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실질주주의 소유주 역시 광주 북구가 1억9747만주(1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구(14.7%), 광산구(11.2%), 여수(9.0%), 목포(7.8%)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만5574명(32.5%) 4억1994만주(36.1%)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 30대, 60대, 20대,

70세 이상 순이었다.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5059명(2.1%)이 682만주(0.5%)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14만7661명(61.8%)에 8억4436만주(72.5%), 여성은 9만1183명(38.2%)에 3억1975만주(27.5%)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주식투자자는 481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서울이 148만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1.5%), 부산(7.0%), 경남(5.5%), 대구(4.7%) 순이었다.

광주(2.7%)는 13만2000명, 전남(2.2%)은 10만7000명으로 주주수는 증가했으나 전국 비율은 전년(광주 2.7%, 전남 2.2%)과 변함이 없었다. 소수주식수 역시 17개 시·도 중 광주는 7억306만주로 12위, 전남은 5억4710만주로 13위를 차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대학 새내기 다단계 피해 예방 캠페인

### 공정위 광주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입학철을 맞아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5일부터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지역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광주사무소는 일자리 부족과 취업난 등을 악용해 '취업, 단기간 고수익 보장', '학자금 대출 앞선', '병역특례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입학철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페인 일정은 광주권 대학이 5~11일, 제주권 대학 12~13일, 전북권 대학 17~21일, 전남권 대학 25~28일 등이다.

광주사무소는 다단계 피해 예방 요령으로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로 판단되면 판매원이나 회원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또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상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보관해둬야 환불 요구시 거부당해도 공제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환불방법과 구입상품 취급요령을 숙지해야 반품시 상품훼손을 이유로 환불 거부 명분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해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공정위 광주사무소 062-975-6818, 경찰서 수사과 25~28일 등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 가계 빚 '토끼 걸음' ... 저축은 '거북이 걸음'

### 지난해 빚 1000조 돌파 저축성 예금 5.5% 증가

지난해 가계 빚은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늘었지만 가계의 은행 저축성 예금 증가율은 6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빚은 토끼 걸음으로 달아나는데 가계의 대표적인 목돈 마련 수단인 저축은 거북이 걸음에 그친 셈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계가 은행에 돈을 맡긴 총예금은 501조7019억원으로 1년전보다 6.6%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저축성

예금(459조7435억원)은 5.5% 늘어난 데 그쳤다. 가계의 예금 중 요구불예금(41조9천584억원)이 20.3%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요구불예금 증가율은 지난 2001년(21.3%) 이후 12년만에 가장 낮았지만 정기예금·적금 등 저축성 예금 증가율은 6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요구불예금은 저축성예금과 달리 예금주가 지급을 원하면 바로 지급하는 예금으로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이 해당된다. 이자율이 아주 낮아 목돈 마련 기능은 없지만 인출이 자유롭다. 가계의 저축성예금 증가율은 2008

년 12.3%에서 2009년 9.7%를 거쳐 2010년 16.0%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 9.4%, 2012년 6.2% 등 작년까지 3년 연속 둔화했다.

가계뿐 아니라 기업 예금(310조7559억원)이나 기타 부분의 예금(197조2276조원)까지 합친 은행 총예금(1009조6854억원)도 2.0%(19조4123억원) 늘었지만 요구불 예금은 10.4%(10조4734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저축성예금에서 사실상 목돈 마련기능은 없는 수시입출식 예금을 뺀 순수 저축성 예금은 아예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 코스피 1970선 회복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유지하면서 코스피가 반등했다.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13포인트(0.88%) 오른 1971.24로 장을 마감하며 1970선 회복에 성공했다.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 사퇴 1주일 차이로 보궐선거

### 광주 분량농협 ... 조합장 지방선거 출마

### 내년 전국 동시선거 앞두고 31일 실시

분량농협이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조합장 선출을 위해 보궐선거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분량농협은 5일, 조합장 자진사퇴에 따른 긴급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정현 전 분량농협 조합장이 사퇴한 출마를 위해 자진사퇴해 이뤄지는 것으로 내년 3월 11일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이례적인 선거다. 만일 이 전 조합장이 선거 기준일인 11일 이후에 사퇴했다면 농협법 개정안에 따라 보궐선거가 아닌 직무대행체제를 갖춰야 한다.

분량농협은 이날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들을 불러 광산구선거관리

위원회 주관으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사진)을 갖고 이사를 앞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깨끗한 선거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도록 했다.

서약식에 참석한 예비후보들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당한 경쟁을 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으며, 특히 돈 선거를 철저히 배격해 앞으로 실시될 조합장 선거의 모범이 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후보자는 물론 조합원에 대한 사전 계도활동과 철저한 감시활동을 통해 이번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 연금복권 인기 '뚝'... 매출 '반토막'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연금복권의 인기가 뚝 떨어져 판매액이 크게 줄었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복권520 상품의 판매액은 1223억5100만원으로 2012년 2146억4100만원보다 42.9% 줄었다. 1등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연금복권은 2011년 7월 출시 이후 5개월간 '완판' 행진을 벌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가 사원찮은 모습이다. 지난해 연금복권 총 발행액은 3276억원으로, 이중 판매된 것은 37.3%에 그친다. 연금복권의 발행액 대비 판매율은 2011년 100%에서 2012년 65.5%, 2013년 37.3%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매달 500만원 받기 보다 일시금 형태 당첨금 선호

올은 저조한 편이다. 즉석식 인쇄복권인 스피드1000은 지난해 발행액 600억원 중 554억9300만원여치가 팔려 판매율이 92.5%에 육박했다. 판매가 줄자 수익금도 줄었다. 연금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수수료 등 사업비를 뺀 수익금은 2012년 445억8300만원에서 2013년 209억17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김대성기자 bigkim@

## 창업 32주년 국제보험기

www.kjhr.com

디지털 보험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총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 모임이 있으신가요?

##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킨 광주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